

시간 정도 견딜 수 있다.

대영은 지난달 말 무궁화유지 등에 이 제품을 적용시키고 있으며, 외국의 유명 세제생산업체인 헨켈, 듀폰 등에서도 높은 관심을 갖고 적용테스트를 하고 있어 상당한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인너박스 제거기술, 보습밴드 적용 등을 특허출원하고 있는 이 제품은 앞으로 부상될 그린라운드와 함께 획기적인 무공해품 이라는데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회사는 세제류 박스외에도 원터치로 개폐가 가능한 구두박스를 개발, 구두메이커와 교섭을 벌이고 있는데 채용될 경우 쇼핑백을 쓰지않아도 되는 장점을 갖고 있어 원가절감 효과가 크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말이다.

국내 세제류 업체들보다 외국에서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 이 제품은 내년초 자동화 설비의 추가설치가 완료되면 시간당 7,000매의 생산이 가능해진다.

한편 대영은 이 제품을 지난달 독일에서 열린 파프로 '94에 전시해 외국의 관람객들이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제품을 다양화시켜 비디어케이스용으로 제작하고 액체를 담을 수 있는 제품도 선보여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말부터 본격적인 생산과 함께 양산에 들어간 대영은 국내시장에서의 경쟁보다는 해외시장 개척에 주력할 계획이며, 플라스틱박스의 대체용으로 수요가 늘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 기초화장품 전품목 리필적용

한국폴라, 비사트 선보여

최근 환경보호와 가격인하라는 측면이 맞물려 화장품을 비롯한 생활용품에 리필바람이 불고 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소비자들에 힘입어 그린마케팅의 일환으로 자원재활용을 목적으로 리필제품이 개발되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 리필제품을 적용하기 시작한 것은 제품에서 용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화장품업계로 한국폴라(대표 이청승)가 89년에 투웨이케익, 91년 영양크림 등을 내놓으면서부터로 이 회사는 그동안 리필적용제품을 늘려오다 이번에 국내 최초로 기초화장품에까지 전품목 리필을 실현하고 있다.

리필화장품의 경우 대부분 투웨이케익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한국폴라의 '비사트'는 기초화장품 전 품목이 리필로 되어 있다.



▲ 현우가 전 품목 리필을 적용한 비사트

폴라는 리필제품의 확대와 이제까지의 에어졸제품의 사용을 중지하고 재생지를 사용한 신제품의 개발, 그리고 과잉포장이 되지않는 포장설계에 신경을 쓰는 등 환경문제에 대응한 상품의 개발에 노력해왔다.

그 결과 업계 최초로 전 품목의 리필화를 실현하여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한편 원가절감으로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고품질 화장품을 공급하게 됐다.

이번에 전 품목 리필화를 실현한 비사트는 '두개의 마음'이란 뜻으로 자연스런 생활과 아름다운 인간의 만남이란 기업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다.

현우는 현우회원제를 통한 무점포 판매제도를 도입, 비약적인 성장을 해왔으며, 매체광고를 하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더 좋은 제품을 보다 싼 가격에 공급하는 차별화된 전략을 세우고 있다.

또한 현금반품제도와 정가정책으로 소비자에게 봉사하고 있는 현우는 90년 75억원, 92년 130억원, 92년 16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 스티로폴 완충제 사용 금지

환경처, 내년부터 단계적 규제

가전제품의 완충 및 포장재로 쓰이는 스티로폴의 사용이

내년부터 규제된다. 또 1회용 광고선전물의 코팅이 금지된다.

환경처는 쓰레기증량제 정착을 위한 보완조치의 하나로 부피가 커 수집, 운반처리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스티로폴 포장재의 사용을 내년부터 소형가전제품에 한해 전면 금지시키고 대형가전제품은 사용억제기준을 제정,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용을 규제하기로 했다.

소형가전제품은 완충재로 스티로폴 대신 골판지, 펄프몰드 등 환경친화적 완충재를 사용해야 한다.

환경처는 스티로폴 포장재의 사용억제를 위해 제품의 포장 방법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1회용 광고선전물에 비닐코팅 등을 금지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재질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환경처는 이와 함께 하반기부터 전국의 국립공원 등산로, 유원지에 설치된 소형 쓰레기통을 철거하고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환경처 관계자는 "현재 스티로폴 생산량의 30%가 포장재로 사용되면서 재활용이 어려운 쓰레기를 양산하고 있다"고 밝히고 "쓰레기의 절대량 감량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우선 내년부터 소형가전제품의 포장재는 골판지나 펄프몰드 등 환경친화적인 완충재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스티로폴 제조회사들이 재활용협회를 구성, 회수 재활용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다 g당 2원 50전인 스티로폴 가격이 골판지(3원 40전), 펄프몰드(4원)에 비해 훨씬 싸서 관련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 확장지·확일표지 등 재생제품 우선구매

내년부터 일반은행·민간기관에 권장

이달부터 재생종이 제품 등 재활용제품의 우선구매 기관이 정부투자기관과 특별법인으로 대폭 확대된다.

환경처는 현재 재생제품의 우선구매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정부기관·국·공립학교와 군부대외에 한국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전력공사 등 23개 정부기관과 농·수·축협, 지하철공사 등 17개 특별법인을 재생제품의 우선구매기관으로 추가 지정해 재생제품의 공공기관 구매를 확대하기로 했다.

환경처는 이를위해 관련 국무총리훈령을 이달중 개정, 이들 기관이 다음달초부터 재생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했다.

이에따라 40개 정부투자기관과 특별법인들은 정부 조달품

목 가운데 KS규격을 지정받은 재생화장지, 화일표지, 중질지, 신문용지, 크라프트지 등 5종과 정부규격으로 채용된 재생공책 조달규격을 획득한 행정봉투 등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우선 구매해야 한다.

환경처 관계자는 이와관련 "기업명, 제품특징, 용도 등 재활용 제품정보를 수록한 카탈로그 3만부를 제작해 공공기관에 이달중 배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활용제품 수요확대를 위해 조달품목 선정시 재활용제품을 우선 선정하도록 조달청 내자구매 사무규정을 개정하고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서식을 재활용 제품이 사용 가능토록 개선하는 한편 공공기관외에 일반은행, 민간기관에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재활용제품 구매를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 GR산업대책반 구성

상공자원부 무역과 연계

상공자원부는 환경문제와 무역을 연계시키는 그린라운드(GR)가 본격화 될 것에 대비해 GR산업대책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GR산업대책반은 최홍건 산업정책국장을 반장으로 상공자원부 및 공진청 등과 전경련·무역협회·경총·상의·무공 등 기업단체, KIET,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관련 10개 기관 관계자들을 참석시켜 ▲무역조치 ▲환경조치 ▲분쟁해결절차 ▲무역규제 제거 등 4개분야에 대한 실태 및 대책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 GR공동대응책 마련한다

경제 5단체장 분야별로

경총·상의·전경련·무협·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5단체장들은 회의를 열고 우루과이라운드(UR) 이후 신라운드로 부상하고 있는 그린라운드(GR)에 따른 대응책을 체계가 공동으로 마련키로 합의했다.

경제단체장들은 UR은 상품 및 서비스시장의 개방을 통한 자유무역주의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측면이 많지만 GR은 원료의 조달부터 제조공정에 이르기까지 국제환경기준의 설정과 적용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따라 환경경영·감사에 대한 대응책은 경총·상의가, 환경관련 무역조치는 무협·무공 등이 맡아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및 다자간 협정내의 분쟁해결 절차는 전경련·무협이, 무역규제에 대해서는 무협·산업연구원이 맡아 대응책을 세우기로 했다.

이외관련 재계는 지난달 호주에서 열린 ISO18000 등 환경관련 국제기준 제정회의에 정부·학계·재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30여명의 대표단을 파견했다.

경제단체장들은 또 올해 노사관련 동향을 보고 받고 임금협상의 조기타결과 분규방지에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 환경기술 중기에 무료지원

환경처, 지원센터 만들어

앞으로 환경기술지원센터가 생겨 중소기업에 무료로 환경기술 노하우를 지원하며 지자체·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환경시설에 대해 정기적인 기술진단이 실시된다.

또 기업들의 저오염 환경기술 개발을 위해 환경마크제도가 대폭 확대된다.

환경처는 이같은 내용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했다.

환경처는 특히 환경마크를 사용하는 기업이 현재 60개업체, 제품수 147개에 불과한 실정을 감안해 올해안으로 환경표식(마크)협회를 설립, 생산기술 등이 환경친화적인 상품을 선정하는 업무를 맡기로 했다.

환경처의 한 관계자는 "환경마크를 부착한 제품이 독일 3,300개, 일본 2,500개에 이르고 있는데 비해 우리는 승인업체수도 적고 청정·그린·무공해 등 환경용어가 제품에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환경마크협회가 환경품질인증을 해주는 대신 기업들은 연20만~100만원의 운영기부금을 내 저오염제품 연구개발 등에 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마크가 부착된 제품은 앞으로 정부기관과 지자체·공공기관들이 우선 구매하게 된다.

이외함께 환경관리공단·국립환경연구원 등이 공동으로 환경기술지원센터를 설립토록 해 중소기업에 환경기술·노하우를 무료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법률안은 또 지자체나 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환경시설에 대해 정기적인 기술진단을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률안은 이밖에 환경처가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환경기술

개발 장기계획을 수립,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되 정부 출연금을 지원토록 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연구과제를 조정토록 하고 있다.

## 광고에 환경용어 사용규제

그린·생분해 등 자료제시해야

하반기부터 '그린', '무공해', '생분해' 등 환경용어의 제품광고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처는 최근 각종 상품광고에 환경용어들이 무절제하게 쓰이면서 소비자들을 혼란시키고 있다고 판단, 앞으로는 환경친화 상품임을 입증하는 자료가 없이 환경용어를 사용할 경우 '독점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규제키로 했다.

환경처는 이를위해 특허청 및 공정거래위와 협의를 통해 환경용어를 사용한 과대광고의 규제방침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환경처는 새 기준을 이달전에 제정해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규제대상은 '그린', '녹색', '무공해', '수질오염이 없는' 등처럼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하거나 '생분해', '광분해', '초절전' 등 용어를 구체적인 수치의 제시없이 사용할 경우이다.

하지만 이미 상표등록을 마친 제품명에 사용된 환경용어는 법률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환경처는 밝혔다.

환경처는 그러나 제품명이 아닌 광고문안에 들어간 용어들은 기존 제품이라도 규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폐유리 재활용실적 중아

자동제병 11사 평균 43.3%

지난해 폐유리 재활용지정 사업자(자동제병 11개사)의 재활용율이 평균 43.3%로 타 업종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의 자료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모두 68만8천톤을 생산하여 173억원에 이르는 29만7천톤을 회수, 원가절감은 물론 정부의 환경보존 시책에도 적극 부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폐유리 재활용 실적은 현대 73.2%, 한일 69%, 동서 59% 순으로 나타났는데 대규모 생산업체인 두산, 삼광, 금비, 태

[표2] '93년도 업체별 폐유리 재이용률

(단위: 톤)

업체명	유리별 생산량 및 폐유리 사용량									계		
	갈색병	폐유리	%	청·녹색병	폐유리	%	무색병	폐유리	%	생산량	폐유리	%
금 비				64,341	31,822	49.5	23,668	5,555	23.5	88,009	37,377	42.4
동 서	29,480	19,396	65.7				11,627	4,834	41.5	41,107	24,230	58.9
동 아	48,694	20,723	42.6							48,694	20,723	42.5
두 산	123,243	53,599	43.4	45,199	19,899	43.9	89,763	22,351	24.9	258,205	95,839	37.1
삼 광							55,510	17,375	31.3	55,510	17,375	31.3
삼 보	19,078	9,124	47.8	20,229	11,288	55.8	13,682	3,433	25.0	52,980	23,845	44.9
안 성	21,112	10,028	47.5							21,112	10,028	47.5
종 성	34,610	17,443	50.4							34,610	17,443	50.4
태평양							37,037	15,296	41.2	37,037	15,296	41.2
한 일	22,418	15,488	69.0							22,418	15,488	69.0
현 대	27,773	20,337	73.2							27,773	20,337	73.2
계	326,408	166,138	50.8	129,769	62,999	48.5	231,287	68,844	29.8	687,464	297,981	43.3

평양 등은 평균치를 밑도는 재활용률을 보였다.

색상별 재활용률은 갈색병 50.8%, 청·녹색병 48.5%로 나타났다 양질의 파유리를 필요로 하는 무색병의 경우에는 29.8%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무색병을 주로 생산하는 삼광, 태평양의 폐유리 재활용 실적은 저조, 양질의 폐유리를 회수할 수 있는 회수 체계가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환경처가 제시하는 폐유리 재활용률 42%(95년)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풀이되고 있으나 두산, 금비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 대기업 신입사원에 환경교육

환경문제 인식시키기 위해

대기업들의 신입사원 교육과정 속에 환경과목이 잇달아 신설되고 있다.

최근 재계에 따르면 현대, 두산, 쌍용 등 대기업들은 향후 세계시장 질서재편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는 환경문제를 신입사원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 입사교육때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낙동강 폐놀오염 사건으로 큰 곤욕을 치렀던 두산그룹은 국내 대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해부터 신입사원 교육에 환경관리 과목을 신설, 이 그룹이 제작한 깨끗한 환경, 우리가 먼저 라는 책자로 2시간동안 교육하고 있다.

쌍용그룹은 올해 1월 실시된 신입사원 교육에 '사회체험연수' 과목을 새로 만들면서 이 내용속에 환경오염의 현장견학

과 거리의 검 제거를 비롯한 환경보전 캠페인을 포함시켰다.

현대전자는 지난달 말부터 실시하고 있는 신입사원 교육에 '그린과목'을 신설, 환경단체 관계자를 초청해 강연을 듣거나 사내 환경보호시설을 견학하는 등 모두 11시간에 걸쳐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 삼성그룹도 오는 7월부터 실시될 예정인 상반기 공채사원 입사교육때부터 환경관련 과목을 포함시키기로 하고 현재 이 과정의 교재를 개발중이다.

## 씩는 합성수지 시판

SKI, 일회용품 원료

선경인더스트리(대표 김준웅)는 자체 개발한 완전 생분해성 수지 '스카이그린'을 지난달 25일부터 시판에 돌입했다.

이 제품은 선경인더스트리가 작년 일본 소화고분자에 이어 개발에 성공한 완전생분해성 지방족 폴리에스테르 수지이다.

시판품목은 면도기, 필기구, 수저, 위생 및 의료기기, 화장품 용기 등의 원료로 쓰인다.

선경인더스트리는 이밖에 생분해성 수지를 원료로 한 코팅 및 라미네이팅 관련 제품의 개발을 끝냈고 이달까지는 일반 포장용 필름 등 진공성형품을, 내년 6월까지의 포장용 완충재 등 발포성형품을 개발할 계획이다.